65 나그네의 귀향

(창25:1‐11)

25:1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25:2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25:3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앗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25: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25:5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 주고,

25:6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25:7 아브라함이 누린 햇수는 모두 백일흔다섯 해이다.

25:8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25:9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 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25:10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25:11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때에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5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과의 이별이 담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의 등장인물의 숭고한 퇴장을 보며 그에게 혼자 박수를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만족하게 하나님께 떠나는 아브라함이 대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해서 설교 원고를 쓰다 말고 박수를 쳤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는 어구가 있지요? 그 어구는 사실 직역을 하면 ‘영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 등으로 죽기 싫을 때에 억지로 부들부들 떨다가 죽은 것이 아닌 정한 수(壽)를 다 채우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는 이만큼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을 주신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자발적 사의(死義)가 함의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기꺼이 하나님께로 떠난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히11:13~16)

13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로라 증거 하였으니

14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 번 살펴 본 바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이방인으로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그가 뿌리를 내릴 그 어떤 땅과 건물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무덤자리로 사놓은 막벨라 굴에 조용히 묻힙니다. 그는 결국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나라, 본향으로, 진짜 고향으로 떠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길 가면서도 흥얼거리고, 잠 잘 때도 흥얼거리고, 공부하다가도 흥얼거리고 할 만큼 너무나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 때 제 막내 동생 여자 친구가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는데 수시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고향을 떠나 온지 몇 몇 해던가

타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이 차마 못 잊어

저는 이 노래를 구슬프게 부를 때마다 본향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는가, 아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자주 고향에서 내 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숨을 거두었고 야곱도 20년 이상을 고향을 떠나 객지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열일곱 살에 고향을 떠나 애굽에서 숨을 거두었고 모세는 그의 인생 120년 동안 한 번도 그 조상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며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개 모두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이민자만큼 나그네 인생, 이방인의 인생, 우거하는 자의 인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보다 마음의 공허와 영혼의 갈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 본향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자기들의 나온바 본향을 생각 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다 타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재산도 권력도 고향이 채워주는 참 만족과 포만감을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참 복 받은 분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에서보다 더 쉽게 교회를 찾는지 아십니까?

그건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처지에 딱히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서 심심함을 달래려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타국에서 자리를 잡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마음속에 휑하니 자리 잡고 있는 고향 떠난 자들의 공허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공허감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확고한 소망을 붙든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처럼 결국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투영하면서 수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고 그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애굽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때에도 우리는 그와 함께 사라를 팔았으며 그가 롯과 헤어지면서 롯에게 땅의 선취권을 내어줄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그가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을 대접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우리는 함께 있었으며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통곡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와 함께 통곡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도 역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 칠십 오세라’하지요? 그 구절을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산, 해 들(years)의 날 들(days)이 17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수명이 한정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생의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 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 시간의 밖에, 오는 세대가 존재함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롬8:18)

18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보시면 사도 바울이 ‘현재’ 즉 ‘현 세대’와 ‘장차 올 세대’가 존재함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한 시대 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오는 세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현세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오는 세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 세대가 고난으로 점철된 세대라면 오는 세대는 영광으로 가득 찬 세대이다.’

그렇게 그 나라를 이미 본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빌3:20~21)

20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창세전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25:34)

34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었다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로부터’라고 번역이 된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어구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될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작된 이 ‘현세’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세는 각자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현세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이라는 새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며 본향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채 영원히 사랑만 하면서 살게 될 그 나라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고난쯤이야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건대’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상상해 보건대, 추측해 보건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서 내린 결론인데’라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그건 치명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소망을 품은 이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이웃과 투쟁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딛1:2, 2:12‐14)

2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12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자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엡2:12)

12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연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며 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 하는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경쟁자나 적으로 간주하여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거나 피 튀기는 우위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불성실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모두 성직(聖職)인 것이며 우리는 모두 성직자인 것입니다. 성직자가 자기의 직무에 태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 열심 속에서 우리의 거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즉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는 여러분의 거룩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대(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연인들이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해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줄 수 있는 안전함(security)과 만족과 평안과 여유와 포만감과 풍요로움을 좋아하는 것이지 돈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인간들이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라면 은행에서 돈 세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돈이 항상 곁에 있다고 행복해 하던가요? 우리는 돈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돈이 만들어 내는 안전함(security)과 만족과 평안과 여유와 포만감과 풍요로움을 다른 것에서 찾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본향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의 힘이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안전함(security)과 만족과 평안과 여유와 포만감과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절대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학위 등으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한 사람을 소개 하고 싶습니다.

(눅9:2‐9)

2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 이러라

5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9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리고의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세리는 백성들의 피를 짜는 자들로 회자될 만큼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당시 세리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둔 만큼의 커미션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둔 만큼 자기의 몫이 많아지는데 세리들이 백성들의 사정을 봐 주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부정하게 세금을 거두어 착복을 함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불러 갔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 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세리들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직책을 이용하여 다른 세리들로부터도 많은 뇌물을 받았을 것이고 그도 역시 백성들의 피를 짜내어 자기의 재산을 불러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의 공허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인기가 있었던 유명한 랍비인 예수가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까지 올라가 그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랍비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가 누구의 것을 토색(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고 현재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뚝 잘라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직업상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경이 그가 부자라는 것을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백성들의 것을 많이 강탈하여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가 강탈한 것을 네 배 씩 쳐서 갚겠다고 합니다.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강탈했을 때에 원금과 원금의 25%의 배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0%의 배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만일 자기에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그냥 파산신고 해 버리겠지요?

게다가 삭개오는 나머지 절반의 재산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난 알거지가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오는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자들은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이 세상의 힘이 초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려 하지 않고 치열하게 남을 밟아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쓰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금 꼬박 꼬박내고 정직하게 수입 보고 하고 해도 돈이 벌립니다.

혹시 제 말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맨 날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이나 보고 있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수입을 제대로 다 보고하고 줄 것 다주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불법과 사기와 권모술수와 잔꾀를 동원하지 않고는 절대 돈이 벌리지 않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억지로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억지로 부자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 곁에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찰나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잘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여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을보고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들보다 더 부럽게 행복하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분이 주신 소망을 궁금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전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에 벌벌 떨고 명예 앞에서 굽 신 거리고 여전히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생각하겠습니까? ‘저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믿는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돈보다도 못한 예수를 뭐 하러 믿겠는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 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더 부럽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돈이 주는 안전감보다 신앙이 주는 안전감이 더 크며, 돈이 주는 만족감보다 신앙이 주는 만족감이 더 크며, 돈이 주는 평안보다 신앙이 주는 평안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돈보다 신앙을 더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돈을 좋아하는 것도 그 것이 주는 안전감과 평안과 포만감을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보들이요, 미친 자들이요, 무식한 자들이라 비웃었지만 그들이 서로 모여 유무상통하고 서로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혹시 저들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인 것을 아닐까?’하고요. 왜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여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보지 못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마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느라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아닐까요? 요즘은 미국의 대형교회들이

직접 쇼핑몰도 운영하고 사업체도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구제도 하고 한다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다보면 그 일 때문에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수 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배만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눅12:1)

1그 동안에 무리 수 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는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눅12:4~5)

4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 행하는 외식과 위선에 대해 설교를 하고 계신데

뜬금없이 자기 형이 유산을 모두 착복했으니 그 유산을 좀 찾아 달라는 청년이 나섭니다.

(눅12:13‐14)

13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힘을 좇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자기 유산을 찾아달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여기서 고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유산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질책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산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통 때에 남편이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하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디가 어떻게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냐?’는 등의 걱정과 함께 약을 찾아 줍니다.

그런데 연속극에 푹 빠져서 눈물까지 흘리며 열심히 연속극을 보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하고 말을 걸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대부분 ‘그래, 그럼 약 찾아 먹어’하고 다시 연속극 속으로 빠져 듭니다. 그렇다고 그 아내가 남편보다 연속극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내가 어떤 것에 몰두해 있거나 심취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안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형이 착복을 한 유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때 그의 귀에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하는 그 부자에게 ‘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부자가 잘 못한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저축해 놓은 것이 잘못인가요?

주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사람이 너무 돈과 노후 걱정에 몰두하다보면 정작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의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학위나 권세 등을 얻기 위해 몰두할 때 우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식의 입신양명 등의 이 세상의 힘을 얻는 것에서 좌절했을 때 가장 불행함을 느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 진 것으로, 혹은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으로 인해 불행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무엇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하여 살았던 것일까요? 때로 우리의 삶에 가난과 질병, 자식에 대한 걱정, 사업의 실패 등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극심한 불행을 느끼셨다면 그 때 우리는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자식을, 건강을 더 의지하고 살았구나’하고요. 성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들은 이 세상의 힘에서 안전과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본향을 향한 소망 속에서 안전과 만족과 평안과 포만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21:4~5)

4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5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안전과 만족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잘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하늘나라에 무사히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수가 높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사베아’는 단순히 장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180세를 산 이삭에게도 쓰였고 70세를 산 다윗에게도 쓰였으며 140세를 산 욥에게도 쓰였고 130세를 산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단어는 ‘나이에 만족해서’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으므로 만족한, 다시 말해 완전한 삶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누가 보기에도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실수와 질곡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을 알리는 창세기 25장이 히브리어 ‘와요쎄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는 ‘더하다’ ‘다시 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진 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넣어서 25장 1절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행하였다(더하였다) 그는 한 여자를 취하였다.’입니다.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지금 그 성경의 일차 수신자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던 그와 같은 일을 또 다시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했던 존재였음이 그 단어 하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사람됨이나 그의 인격의 성숙 등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었기에 그의 죽음을 ‘만족한 죽음, 완전한 죽음’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자들의 안전함입니다. 실수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본향을 향한 그리움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 그것이 만족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의 보배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마쳐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100년(히브리사람들의 완전수)후에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베아’라는 단어와 ‘100’이라는 숫자는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내는 삶은 아브라함의 삶처럼 ‘사베아’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빌2:13)

13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히10:9)

9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요일2:17)

17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 하느니라

(벧전4:1‐3)

1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 하도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당신의 인생을 어거(馭車)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뜻과 꿈과 소원과 비전이 자꾸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뒤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만족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임종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 아쉽다. 돈을 좀 더 벌었어야 했는데’ 혹은 ‘좀 더 신나게 놀 걸’ 혹은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하고 죽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착하게 남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잘 살았어야 했는데’하고 후회를 하고 갑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것들은 덧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본향을 그리워하세요. 꿈에라도 그리워하세요.